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소공녀



신승주 'Whir, Whir' (왼쪽)와 시카모토 구미코 '12월의 빨간 집'.

배우들의 앙상블 '주목'



더 미드와이프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 '소공녀' · '더 미드와이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3월 넷째 주 상영작 3편 공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배우들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영화 3편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소공녀', '더 미드와이프'를 3월 넷째 주 작으로 22일부터 상영한다.

이들 작품은 지난달 관객실문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이탈리아의 가족 별장에서 여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열 일곱 소년 엘리오가 아버지의 보조 연구원으로 별장을 찾은 스물 셋 청년 올리버를 만나 가슴 설레는 첫사랑에 빠지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다.

영화는 2007년 발간된 안드레 에이치먼의 원작 소설 '그해, 여름 손님'을 섬세하게 각색한 작품으로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했다.

주연을 맡은 티모시 샬라메와 아이 해머는 빛나는 케미를 일궈낸 완벽한 캐스팅이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각각 아카데미 최연소 남우주연상과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는 쾌거를 달성해 할리우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소공녀'는 집안 없을 뿐, 일도 사랑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현대판 소공녀 미소의 도시 하루살이를

사랑스럽게 담아낸 드라마이다.

다수의 작품을 통해 대세 청춘 배우로 자리매김한 두 배우 미소 역의 이송, 한솔 역의 안재홍은 현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통의 연인들의 모습을 섬세하고 리얼하게 연기하여 N포 세대의 청춘들에게 깊은 공감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또 한편의 영화 '더 미드와이프'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른 철부지 새엄마 배아트리체와 바른 생활 조산사 딸 클레어가 35년 만에 재회하며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를 그린 힐링 감성 드라마다.

프랑스가 사랑하는 국민 배우 까뜨린느 드뇌브와 국내 관객들에게 '열리제공의 요리사'로 익숙한 카트린 프로의 앙상블이 주목되며 프랜차이즈 감성이 가득한 파리의 일상 풍경들과 카페, 낭만적인 센강과 에펠탑까지 아름다운 영상미가 더해져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또한 프랑스 개봉 당시 31주 최장기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중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젊은 작가들의 '낮선 출발'

공간시은, 브릿지 프로젝트 전시

공간시은이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와 함께 브릿지프로젝트 '낮선 출발' 전시를 선보인다.

브릿지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역, 외부전문가와 작가, 스튜디오와 스튜디오의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 작가들의 프로모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낮선 출발' 전에는 김미래, 김여진, 마리아 사바, 박은영, 시카모토 구미코, 성필하, 송미진, 신승주, 이우성, 임승균, 전병규, 정재범, 최영빈, 허주혜, 허현숙, 황민규 등 16명의 작가가 참여해 30여점의 작품을 펼쳐 보인다.

송미진의 '기억의 방식/Dir'은 단조롭고 보잘 것 없는 주변의 풍경과 대상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하게 되는 존재감을 그림으로 읊조렸다. 작가는 옥상 위의 거대한 물탱크, 오래된 벽의 갈라진 틈새, 고속도로변의 공장지대 등 일상의 변두리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통해 내면에 묻힌 감성을 일깨운다.

시카모토 구미코는 '12월의 빨간 집'에서 산책 중에 발견한 인상적인 풍경을 묘사해낸다.

신승주의 작품 'Whir, Whir'는 부유하기를 반복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담았다.

공간시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품 위주로 공간에서 소개하고 외부와 지속적인 교류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정해은 기자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공모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터미널 문화 봄' 프로그램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터미널 문화 봄 프로그램'이 2018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육성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가 있는 날의 인식 확대를 꾀한다.

재단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4~5월부터 문화공간으로서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터미널 문화 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터미널 문화 봄'은 재단의 여객차 동차터미널 아트 공간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역 시·군 버스터미널 및 도내 터미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문화향유 콘텐츠 '봄'과 새로운 문화경험으로서

의 '감', 그리고 주민 지역연대로서 '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에서 공모한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전국 249개가 접수해 최종 21개 단체 및 기관이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2곳이 선정됐으며, 중·대규모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소규모는 '터치포트' 단체가 지원받게 됐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이번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에



고창터미널

선정된 만큼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역민과 이용자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기업 파트너 모집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가 기업 파트너 및 기부 기업을 모집한다.

'무주산골영화제 기업 파트너' 참여 방식은 크게 현금 및 현물 협찬으로 구분되며, 한국문화예술회원을 통한 기부 방식도 가능하다.

이번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할 기업 파트너 및 기부 기업에게는 영화제 기간 중 브랜드 영상광고 노출, 공식 인쇄물 및 옥외 홍보물을 통한 로고 노출, 지면 광고 등 협찬 금액에 따라 다양한 기업 홍보를 진행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행사 기간 내 방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스 운영 및 이벤트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www.mj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21일부터 25일까지 덕유산 국립공원 등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